

일 반적으로 전통춤 공연이라 하면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겹거나 기피 되는 공연 장르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공연에 추가되는 작품의 의미와 그 내용 역사들을 상세하게 설명 해 줌으로서 한국의 전통춤이 관객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고, 공연을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계승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전통춤 공연을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 전통춤 발전과 연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008 하연화의춤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우리 춤

일 시 : 2008년 9월 20일(토) 오후 3시, 6시 (2회 공연)

장 소 : 민주공원 소극장

주 최 : 하연화 무용단

후 원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춤패 배김새, 민주공원

문 의 : 051-620-4964 / 016-436-7121

출연진

하연화, 박성호, 김민경, 조은정, 김경아, 김동희, 김선현,
박지연, 박애리, 장하나, 황경아, 남산놀이마당

해설

홍순연 (소리꾼/술래소리마당 대표)

스태프

기획 : 심종석 (일터소극장 기획실)

무대디자인 : 황지선 (운현무대 대표)

무대감독 : 정수임 (춤패 배김새 단원)

음향 : 노호준 (민주공원 음향감독)

조명 : 류성호 (민주공원 조명감독)

사진/영상 : 박창현 (이브 Studio 대표)

진행 : 김희란 남진아 정현주 정혜미
(경성대 무용학과)

※이 공연은 2008년 부산광역시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살풀이춤 Salpuri chum

|중요무형문화재 제97회

한을 바탕으로 하면서 기쁨이 있는 인간의 이중구조적 심리를 잘 표현한 살풀이춤은 살풀이라는 독특한 무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다지듯 내딛는 발디딤은 땅의 기운을 단전을 거쳐 손끝의 수건에까지 전하며 그 기운은 호화로운 수건놀림으로 이어진다.

숨막힐 듯 한 호흡의 무게감과 깊은 내면에서 뽑아내는 듯 한 팔의 선, 은근한 고개 짓 사이로 드러나는 목선, 선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무태는 내면의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출연 이연화

입춤 Ip chum

입춤은 호남 지방 예술의 정통 계보를 잇는 춤으로 세련미와 애잔하고 요염한 여성적 교태미가 부각된 (李梅芳)류 전통춤 특유의 미학과 맥을 지닌 춤이다.

출연 김동희, 김선현, 박지연, 박애리, 장하나, 황경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

태평무 Tea Pyung Mu

태평무는 국가의 안녕과 태평성대(太平聖代)를 축원하기 위해 추어졌다고 한다. 오늘 추어지는 태평무는 한국 근대무용의 시조인 한성준선생이 1900년대쯤 경기도 무속음악인 진쇠가락을 비롯하여 낙궁, 티벌림, 도살풀이 등의 가락을 기초로 하여 만든 춤으로 故 한영숙에 이어진 춤이다.

왕비의 복식이 매우 화려하며, 우아한 자태미가 돋보이고 춤동작에서는 위엄이 서려있어 절제된 정한미(精悍美)가 담겨져 있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발디딤새와 절제된 상체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화려하면서도 단아하고, 경쾌하면서도 절도감이 있어 도도함까지 엿보이는 이춤을 난에 비유하기도 한다.

출연 이연화

산조춤 San jo chum

산조춤은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1894-1957)옹이 자신의 가야금산조 가락에 춤을 엮어 산조춤을 성립시킨 춤으로 1948년부터 그의 직계 춤제자인 김

온경에게 전수시킨 강태홍류의 산조춤이다. 이 산조춤은 그 음악의 성격이 우조와 평조 그리고 계면조를 동시에 사용하며, 엷박의 묘미를 많이 취하고 있어서 우조의 산뜻하고 우아함과 평조의 안정되고 편안함 그리고 계면조의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맛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절제된 기교가 그 특징이며 전아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으로 춤사위를 풀어가는 묘미가 있다.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중모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연 박성호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진주교방굿거리춤 Jinju gyobang gugeoli chum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은 고려 문종때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관기제도에 의해 교방청에서 전승되어진 춤이다. 궁중교방 계열의 춤으로 고종조에 궁중무희였던 최완자가 낙향하여 교방청에서 전수하였고 여기에 김녹주의 소고춤이 더해져 이것이 현 보유자인 김수악선생에게 전수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춤의 성격은 한국춤의 네가지 요소인 한, 흥, 멋, 태를 고루 갖춘 춤으로서 차분하면서도 은은하며 섬세하면서도 애절한 무대로서 정, 중, 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무이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

출연 하연화

배김허튼춤 Beagimhuthen chum

배김허튼춤은 경남지역의 고유한 춤사위인 “배김사위”를 바탕으로 한 허튼춤 모형을 제시한 작품이다. 몇 가지의 춤 놀이인 밀양백중놀이, 고성오광대, 동래학춤 등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춤사위인 배김사위는 ‘땅에 힘차게 내려 박는다는 명칭’으로 강하고 춤 폭이 크고 멋스러우며, 마당놀이춤으로서 흥을 맺고 풀어가는 독특한 표현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배김허튼춤의 형식은 기본적인 허튼춤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적 토속성이 강한 여러 가지의 배김사위를 가미한 춤이다.

출연 하연화, 김민경, 조은정, 김경아, 장재희, 유재철, 조대일, 방형웅



하연화 Ha Yeon Hwa

경성대학교와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
1989년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조교를 역임하고,
1992년 신성여자상업학교에 재직한 바 있다.
스승인 최은희 선생의 실험적 창작정신과 철학을 이어받아
85년에 창단된 춤패 배김새의 활동으로
서울무용제, 부산무용제, 민족춤제전, 한국무용제전, 부산여름무용축제,
일본아리랑축제, 독일민속문화축제, 지방순회공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통무용, 궁중무용, 민속춤, 마당극, 무예 등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항상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춤꾼이다.
현재 춤패 배김새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한국무용연구회 이사, (사)무용가최승희 기념사업회 부산지회 부지회장과,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날고 싶음에...」, 「가을 뜨락에 서서」, 「빛이 될 때까지 I」, 「여름맞이」,
「빛이 될 때까지 II」, 「퓨전 시나위」, 「춤(향)」, 「바다를 건너는 나비」,
「나비 날다」, 「푸른 눈물」, 「길에서 길을 묻다」 등